

여행하기 좋은 순창 만든다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군은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을 비롯해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캠퍼어 운영 등 여행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여행사와 언론인 대상 캠퍼어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사업은 2인 이상 10인 미만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하고 주요 관광지 1곳을 방문하면, 1인당 숙박비 최대 1만 원, 농촌 체험 시 체험비 50% 이내(최대 1만 원)가 지원된다. 단, 군 운영 체험시설이나 캠프·차박은 제외된다.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버스 1대당 탑승 인원예 따라 20인 이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순창장류축제 외국인 문화체험단 캠퍼어.

상일 경우 30만원, 30인 이상일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당일여행은 유·무료 관광지 각 1곳과 식사 1회를 이용해야 하며, 숙박 여행의 경우 관광지 3곳과 식사 2회를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여행사나 언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퍼어(Farm Tour)'도 연중 운영된다.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에게는 체험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민간 숙박업소 및 체험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알차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다"며 "여행하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지역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개정 지방세 제도로 주민 혜택 강화

순창군, 생애최초·출산·양육 혜택 유지... 빈집정비 전면 새로 도입

순창군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에 맞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무주택자,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

군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유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대로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도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세무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 동안 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간에 천문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당일 야간 관측을, 야간 관측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다음날 주간 관측을 무료로 제공하는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료 관람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짧은 방문이

아닌 하루 이상 머물며 낮과 밤의 천문관측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라는 점이 특징이다.

남원시 천문과학관은 해시계, 지각투 등 14종의 과학 체험물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리모델링을 마친 호남권 유일의 4K 풀돌 4D 영상관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영상과 함께 우주·과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도 실내의 체험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관람이 가능하고, 특



히 겨울밤의 맑은 하늘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과 주간 태양관측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관람객에게도 색다른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시설과(063-620-898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 속 재활용 실천 확대

임실군,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본격 운영

임실군이 자원순환 활성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재활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읍·면사무소에서 시행되며,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크림, 친환경 생과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재활용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환 기준은 품목별로 종이팩의 경우 200ml 20개, 500ml 10개, 1,000ml 5개이며, 폐건전지 10개, 아이스크림 5개, 친환경 생과 2개를 모아오면 화장지 또는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구어 펼쳐 말린 상태로 배출해야 하며, 아이스크림 쉘 투입에 한해 세척 후 완전히 건조된 것만 교환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 생과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 등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제작된 경우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다.

우유, 주스 등에 사용되는 종이팩은 최고급 천연펄프로 제작된 우수한 자원으로, 고급 화장지와 미용 티슈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또한 폐건전지에는 수은, 니켈 등 유해 물질이 잔존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면 철, 아연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실천 사업"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할인 받아요"

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그러나,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연세액

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1개월)에 해당해 이를 감안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6%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기존에 연납을 하지 않았던 차량은 별도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이행 홍보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 조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며,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연 기간 30일 이내 5만 원, 31일부터 3월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되어 최고금액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 신청검사서, 기존 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검사서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해당 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만 인정,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이 발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장학숙 신규입학생 모집

제)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에서 운영하는 남원장학숙이 2026년도 신규입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으로 신청 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며,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또는 학생 본인 중 한 명 이상 남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 이메일(zheun12@korea.kr),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남원장학숙(02-3462-60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난방용품 사용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전기히터, 전기매트, 전기열선 등 겨울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3대 전기 난방용품은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으로, 추운 날씨로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시간 사용하거나 노후 제품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안전인증(KC마크) 제품 사용 △사용 전 먼지 제거 및 전선 상태 확인 △난방용품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안전거리 확보 △외출 시 또는 장시간 미사용 시 플러그 분리 △사용 후 전원 차단 철저 △수면에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전기제품과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 또한 높아진다"며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명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이 놓였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